



2017-53

「경제」

아르헨티나 2016년 경제 현황과 동향

■
중
남
미

서성철 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주요내용

- 2015년 12월, 우파의 마크리 대통령은 취임 후 자유시장, 개방경제, 외환규제 폐지, 수출세 폐지 등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비즈니스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가시적인 경제효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음.
- 2016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정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산업생산의 저하, 인플레이션의 증대, 실업자의 증가 등으로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함.
-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나 경제전문가,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관은 2016년 한해가 신경제정책의 수행을 위한 과도기였다는 점을 들어 2017년부터는 침체기를 벗어나 점차 경제가 호전되리라고 예상함.

1. 이슈 현황

▶ 2015년 12월, 우파의 마크리 대통령은 취임 후 자유시장, 개방경제, 외환규제 폐지, 수출세 폐지 등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비즈니스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가시적인 경제 효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음.

□ 2016년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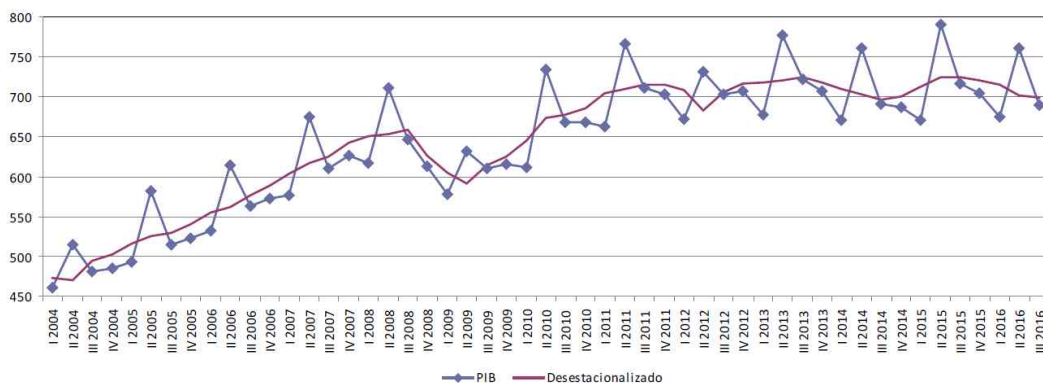
- 마크리 집권 첫해의 아르헨티나 경제는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에 비롯된 갖가지 복잡한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임.

□ 2016년의 경제지표를 보면 아르헨티나 경제는 분명히 후퇴하였음

- 2016년 아르헨티나 국민총생산은 전년 대비 1.5% 하락한 것으로 보고됨.
- 2016년 1/4분기 국민총생산(GDP)은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 0.6% 증가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임.
- 2/4분기에는 전년도 같은 분기에 비해 -3.7%, 3/4분기는 -3.8%를 기록함.
- 2/4분기 국민총생산은 1/4분기에 비해 -1.9%, 2016년 3/4분기는 2/4분기에 비해 -0.2%임.¹⁾

그림1. 2004~2016 아르헨티나 GDP 추이

(단위 : 10억 페소)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1) 2015년의 국민총생산은 630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541억 달러(추정치)로 감소하였음.

그림2. 2014~2016년 아르헨티나 GDP 성장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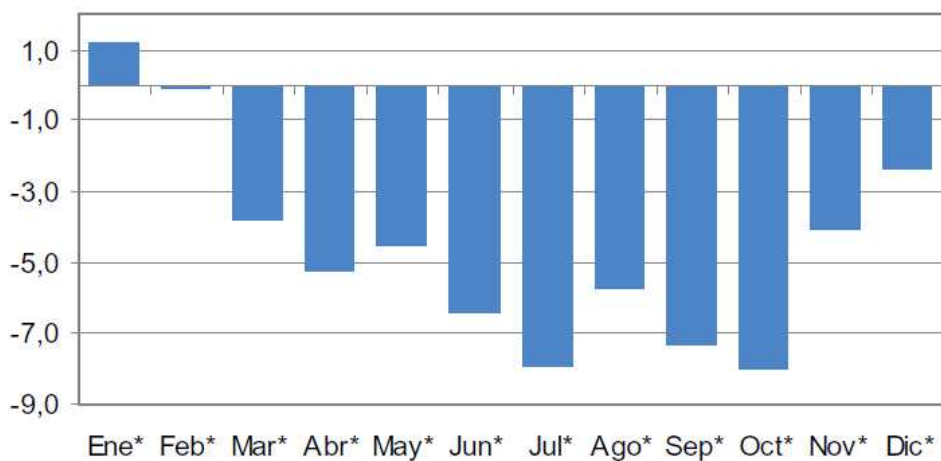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 2016년 2월의 산업생산을 보면 전년도 동월 대비 -0.1%를 시작으로 10월까지 -8.0%로 계속 하락 추세였음.
- 다만 3/4분기에 산업생산은 현저히 떨어졌지만²⁾, 11월의 -4.1%, 12월의 -2.3%로 하락세가 멈추면서 소폭의 상승세로 돌아섬.

그림3. 2016년 아르헨티나 월별 산업생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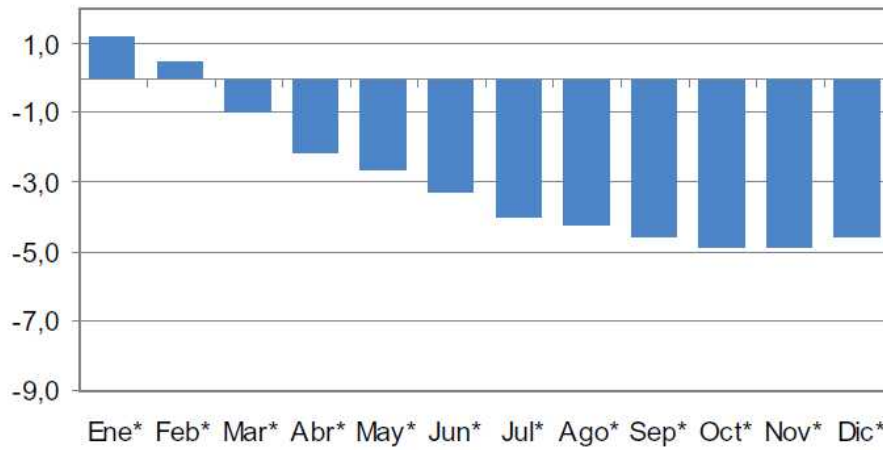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2) 단지 시멘트, 철강 등 건설 부문만 회복세를 보였음.

그림 4. 전년 대비 2016년 아르헨티나 산업생산(누적)

(단위 : %)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 무역수지는 2016년 2/4분기부터 증대해 2016년 8월에 최고치인 7억 5,000만 달러(약 8,584억 원)를 기록하였고, 10월까지 10억 달러의 흑자를 유지하다가 4/4분기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함.
- 그러나 무역흑자가 발생한 것은 수출 증대라기보다는 불경기로 인한 내수 침체로 수입 감소 폭이 컸던데 기인함.
- 2016년 수출 물량은 지난해보다 2.1% 감소했지만, 수입은 8.2% 감소하였음.
- 그나마 곡물 및 원자재 수출 증대가 무역수지에 크게 기여하였음
- 2016년 12월 수출액은 45억 9,100만 달러(약 5조 2,512억 원), 수입액은 45억 2,600만 달러(약 5조 1,782억 원)임.

그림 4. 2016년 아르헨티나 실업률

(단위 : %)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 2016년 3/4분기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은 8.5%³⁾로서 이는 전년도 동 분기 대비 5.9%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임.
 - 실업률은 2016년 7월의 9.3%에서 11월의 8.5%로 소폭 하락하였지만, 12월에는 다시 9.6%로 상승함.
 - 2016년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에 의하면 3/4분기까지 12만 7,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음.
 - 그러나 불법,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감안하면 실업자 수는 이보다 최소 30%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됨.⁴⁾
 - 정확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마크리 정부 1년 동안 약 3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일자리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임금도 크게 하락해 2016년 9월까지 임금인상률은 평균 32.6%로 집계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은 44.8%에 달했음.
 - 이 수치는 1991년 이래 25년 만에 나온 최고치로서, 물가상승은 주로 공공요금과 교통비, 의류, 신발, 문화비용 등이 주도하였고 특히, 전기, 가스, 수도와 택시요금 인상이 중요 비중을 차지하였음.

-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빈곤율은 마크리 정부 5개월 만에 13.43%로 급증하였음(2015년 11월: 19.82% → 2016년 4월: 33.25%).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아르헨티나인의 32.2%인 870만 명이 빈곤층에 속하고 6.3%인 130만 명은 극빈층임.

그림 4. 2016년 아르헨티나 연간 인플레이션율

(단위 : %)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3) 민간 경제연구소는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을 정부가 발표한 8.5%(3/4분기)보다 높은 9.9%로 보고 있음.

4)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부문은 건설(-12.4%), 광업(-7.8%), 제조업(-3.2%) 순이고, 일자리가 증가한 부문은 사회복지, 의료, 금융, 교육 부문임.

- 인플레이션은 2016년 4월 6.5%를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10월 2.4%, 12월에는 1.2%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연간 누적 인플레이션은 41%를 기록함.
- 이 수치는 2002년의 40.9%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임.
-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은 세금, 부가가치세(IVA)의 인상, 수입품에 대한 철폐 등과 같은 마크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인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정상화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특히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의 인상률은 한해 70%에 달했음.

2. 원인과 분석

▶ 2016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정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산업생산의 저하, 인플레이션의 증대, 실업자의 증가 등으로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함.

- 아르헨티나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고실업(8.5%), 고인플레이션(41%), 정부의 재정적자(2016년 GDP의 4.6%), 정부부채(GDP 대비 55%)임.
- 아르헨티나 신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문제의 해결이 관건임.
- 2016년 정부는 연간 인플레이션을 20~25%로 잡았으나 집권 이후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해 연말 인플레이션은 41%를 기록하였음.
- 높은 수준의 금리는 여전히 우려할만한 사항임.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16년 초 40%에 육박했던 기준금리를 24%까지 낮췄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큰 부담임.
- 그리고 고금리는 투자와 인플레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⁵⁾
- 아르헨티나 산업생산의 저하 및 경쟁력 약화는 공공지출의 과다에 기인함.
-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높은 공공지출로 인해 고세율, 고인플레이션(2016년 41%), 고이자율(은행 간 대부이자율은 24.9%, 기업대출 연 이자율은 40%), 폐소화 고평가, 재정적자(2016년 GDP의 4.6%)가 초래되었다고 분석함.
- 이로 인해 국내 제조품의 생산 비용이 높아져 수출과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이는

5) 그동안 금리 및 통화정책을 둘러싸고 재무부의 프라트가이 장관과 스투르헤네거 중앙은행 총재 간에 갈등과 잦은 논쟁이 있었음.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안정을 중시해 금리는 서서히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프라트가이 장관은 금리의 조속한 인하를 통해 경기 회복을 주장함. 주요 두 경제부처 간의 싸움에서 마크리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 두 책임자를 경질하였고, 통일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무부를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부와 거시경제정책을 지휘하는 경제부로 이원화시켜 권한을 분산시켰음. 향후, 마크리 대통령의 강력한 친정으로 재정 긴축은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임.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투자유치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였음.

- 투자의 부진으로 인한 경제 선순환 단계로의 진입 실패
 - 신정부 출범 후 약 200억 달러(약 23조 원)를 상회하는 외국의 직접투자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2016년 상반기에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는 고작 13억 달러(약 1조 4,890억 원)에 그쳐(GDP의 0.3%), 향후 외국투자의 유입 향방이 주목됨.
 - 아르헨티나 주요산업인 자동차 제조 및 건설 등은 여전히 부진하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마크리 정부의 경제계획에 필수적인 투자가 신속하게 유입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명함.
- 재정적자 축소로 인한 긴축정책으로 사회적 마찰 야기
 -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구조조정 및 각종 보조금 삭감을 통해 물가상승이 가속화되고 실질임금이 감소하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내수가 침체됨.
 - 이로 인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침.

3. 전망과 시사점

▶ 아르헨티나 정부나 경제전문가,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관은 2016년 한해가 신경제정책의 수행을 위한 과도기였다는 점을 들어 2017년부터는 침체기를 벗어나 점차 경제가 호전되리라고 예상함.

- 마크리 정부 출범 후 2016년부터 경제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으로 구조조정, 인플레이션, 실업 등 고통이 뒤따랐으나 2017년부터는 개혁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해 올해 아르헨티나 경제는 성장세로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함.
 - 그러나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3.5% 성장 목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하면서 2~2.5% 성장을 예상함.
 - 심지어 2017년 성장율은 1.5%~1.8% 또는 1%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음.
 -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관도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될 2017년부터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져 아르헨티나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IMF: 2.8%, 세계은행 3.1%).
 -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률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한 실질임금의 상승, 그리고 정부의 인프라 공사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등 아르헨티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여짐.

- 인프라 프로젝트, 연금, 소득세 인하 계획 등에 따른 지출로 정부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마크리 정부는 2017년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4.2%로 잡고(2016년: 4.6%)로 잡고, 해외 금융(2017년 400억 달러(약 45조 원)의 외채도입을 추진 중)을 통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그러나 이는 페소화 가치를 상승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함.
 - 2016년 지하자금 양성화 정책의 성공으로⁶⁾ 2017년 재정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는 할 수 있지만, 올해 10월의 중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큰 폭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는 의문임.

- 외국투자의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경제전문가들은 2017년 성장은 주로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마크리 정부 출범 후 공식 발표된 투자 규모는 220억 달러(약 25조 원)에 이르며 향후 투자 활성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모건 스탠리 투자회사 역시 아르헨티나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5년 동안 600억 달러(약 68조 6,759억 원) 이상의 투자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함.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투자비율은 현재 15%에서 2021년 21%까지 상승할 것이며 이는 연평균 3%대의 성장을 보장할 것이라고 예견함.
 -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동으로 외국자금과 투자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 아르헨티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국제경제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임
 - 아르헨티나 신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중국의 경제 및 아르헨티나의 최대교역국인 브라질의 경제, 그리고 국제 원자재 시세 등 국외환경의 변수에 달려 있음.
 -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요인이 아르헨티나에 큰 영향을 미치면 페소화 절하가 빠르게 진행되어 인플레가 유발되고 봉급자의 실질임금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트럼프 효과로 아르헨티나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바, 향후 아르헨티나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 아르헨티나의 당면과제는 실업 해소와 물가안정, 그리고 고용창출인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

6) 당초 정부는 400억 달러를 목표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실행한바, 은닉 자산에 대한 자진 신고액은 1,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음. 3차 신고 기간이 마감되는 올해 3월 말까지 신고액이 얼마나 더 추가될지는 예상하기 어려움.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정책의 성공으로 조세 개혁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봄.

지 못하면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이는 투자에 악영향을 주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은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마크리 대통령은 초기보다는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최근의 급여 삭감, 공공요금의 인상, 보조금 인하 등의 정책으로 파업 및 시위가 확대되고 있음. **EMERiCs**

출처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La Nación, Cronista, EFE 현지 언론 자료

💡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이슈분석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